한·일 쟁총형(爭寵型)서사의 비교 연구

- 주로 17세기 이후 근세 소설을 중심으로 -

김난주*

〈차 례〉

1. 머리말
2. 악녀의 설정
3. 악행의 양상
4. 한·일 쟁총형 서사의 결말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주로 17세기 이후 한일 쟁총형(爭寵型) 소설에 등장하는 처·첩(후처)간의 갈등 구조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양국 쟁총형 서사의 특질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한 지아비와 여러 부인을 둘러싼 애정 갈등이라는 동일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한일 쟁총형 서사는 악인의 설정과 갈등의 전개 양상, 결말 구조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근세시기 한일 쟁총형 서사에서 한 집안에 갈등과 비극을 몰고 오는 악녀는 공통적으로 '투기하는 아내'들로 설정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양국 문학이 이들 악녀를 정반대로 지목한다는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연구전담 조교수

점이다. 즉, 한국 고전문학에서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거의 언제나 첩(후처)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 악녀의 자리는 전통적으로 첫째 부인이 차지한다.

한국 쟁총형 소설에서 후처들이 벌이는 악행의 양상은 모략과 적처 축출, 자식 살해와 간통, 남편 살해기도 등 다양하다. 이에 반해 근세 시기 일본 쟁총형 서사는 죽은 전처가 원귀가 되어 나타나 후처와 남편을 살해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즉 괴담이라는 형식과 남편 살해 모티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가부장 살해는 한국 쟁총형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좋은 대비를 이룬다. 또한 한국 고전소설에서 원귀가 등장하는 것은 〈장화홍련전〉 같은 계모형 소설이지, 쟁총형 소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한일 쟁총형 서사의 커다란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한국 쟁총형 소설의 결말 구조는 철저하게 권선징악의 룰을 따른다. 즉 악녀는 패배하여 대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정숙한 첫째 부인은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정을 복구하고 대대손손 번영의 길로 이끈다. 이에 반해 일본 근세 문학은 적처의 복수로 인한 가족의 몰살과 가정의 해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주제어 : 爭寵型敍事, 妬忌, 妻妾葛藤, 우와나리우치(後妻打ち), 近世小說, 怪談

1. 머리말

본 논문은 주로 근세시기 한일 쟁총형(爭寵型) 소설에 등장하는 처·첩(후처)간의 갈등 구조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양국 쟁총형 서사의 특질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쟁총형 서사'란 한 지아비의 애정과 가정 안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처와 첩 혹

은 선처(先妻)와 후처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그로 인한 비극을 그린 서사물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쟁총형 서사는 조선 후기(17세기 이후)에 형성된 이른바 가정소설(혹은 가문소설)에 대거 등장한다. 가정소설이란 일부다처제 및 축첩제, 그리고 효와 정절을 강조하는 동양적 가족 제도 하에서 야기되는 가족간의 갈등과 비극을 다룬 고소설 장르를 말한다. 이 중 쟁총형 소설은 계모와 적출 소생의 갈등을 핵심 소재로 하는 계모형과 함께 가정소설의 양대 유형을 형성한다. 일본 문학사에서도 한 지아비를 둘러싼 여성들의 애정 갈등이라는 모티프는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설화와 소설, 극문학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고 문학의 중요한 소재로 차용되어 왔다. 다만 한국 문학사에서 가정소설[1]의 하위 유형으로서 쟁총형 소설에 대한 장르 개념이 확립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 문학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투부담(妬婦譚)[2]', '망부복수담(亡婦復讐談)'[3], 또는 우리말로 '후처 때리기' 정도로 번역되는 '우와나리우치(後妻打ち)[4]', '이처형(二人妻型) 이야기' 등 다양한 명칭이 혼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 용어로서의 정착도가 높고, 한 남편과 여러 부인 사이의 애정 갈등이라는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쟁총형' 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1) 일본에서 '가정소설'이라 하면 주로 명치(明治) 대정기(大正期)에 유행한 통속소설로, 주로 봉건적 가족관계에 고통 받는 여성이 종교 혹은 순수한 사랑에 의해 구원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畑實, 「家庭小說」, 『日本大百科全書』, JapanKnowledge, http://japanknowledge.com (검색일 : 2018-01-09).

2) 小野眞代, 「中世文學における妬婦譚」, 『駒澤大學大學院國文學會論輯』32, 駒澤大學大學院, 2004, pp.55-75 등.

3) 堤邦彦, 「近世怪異小說と仏書-2-亡婦復讐譚・食人鬼說話を中心として」, 『芸文研究』51, 慶應義塾大學藝文學會, 1987, pp.48-68 등.

4) 堤邦彦, 「女靈の江戸怪談史-仁儀なき後妻打ちの登場」, 一柳廣孝・吉田司雄 編, 『幻想文學 近代の魔界へ』, 東京 : 青弓社, 2006, pp.77-95 ; 淺見和彦, 「都と鄙の女性說話-後妻打ちをめぐって」, 『國文學』50-10, 學燈社, 2005, pp.67-75 등.

한국 문학사에서 쟁총형 서사에 대한 연구는 특히 쟁총형 가정 소설을 중심으로 개별 작품의 갈등 구조 분석에서부터 쟁총형 가정 소설의 통시적 변모 양상, 소설 전반의 구조와 특질을 파악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행 연구가 집적되어 있다.[5]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개별 작품 연구는 많으나 쟁총형 서사물이라는 큰 틀에서 작품의 변모 양상을 추적하거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질을 다루는 연구는 소홀한 듯하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업적과 한계를 발판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일 쟁총형 서사의 특질을 고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 고찰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17세기 이후 양산된 고소설에서 쟁총형 서사가 집중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신화와 설화, 소설과 극문학 장르에서 다양한 텍스트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 고찰의 기준을 확보하고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17세기 이후 근세 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악녀의 설정

1) 투기하는 아내

한국의 경우 조선 초, 태종 13년(1413년)에 중혼 금지 법령이 제정되면서 전대에 성행하던 다처제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정실을 둘 이상 두는 것을 금지한 것이었을 뿐 첩을 두

5) 한국 가정소설과 쟁총형 서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로, 鄭鉉東, 『古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83 ; 한상현, 「고소설에 나타난 악녀의 실상- 쟁총형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95 ; 김귀석, 『朝鮮時代 家庭小說論』, 국학자료원, 1997 ; 朴慶烈, 「고소설의 가정갈등에 나타난 악행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1-238 등을 참조하였다.

는 풍습은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었다. 이렇게 축첩이 성행한 조선 사회가 여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투기(妬忌)에 대한 경계였다.

조선 시대 현모양처상을 제시한 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우암 계녀서(尤庵戒女書)』를 보면 투기에 대한 경계가 조선 양반가의 부녀자들에게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조선 성리학의 거두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출가하는 자신의 큰딸에게 지어주었다는 교훈서로, 부모 섬기는 도리에서부터 남편 섬기는 도리, 시부모 섬기는 도리, 자식 가르치는 도리, 제사 받드는 도리, 손님 대접하는 도리와 노비 다스리는 도리에 이르기까지 양반가 부녀에게 필요한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내용이 20개 조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투기'에 관한 내용이 두 군데나 들어 있는데, 먼저 〈남편 섬기는 도리〉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여자의 일평생 우러러 바라는 것이 오직 남편뿐이다. … 여자가 부군을 섬기는 일 가운데 투기를 아니 하는 것이 으뜸가는 행실이니, 일백의 첩을 두어도 본체만체 말하지 말고, 첩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성난 기색을 나타내지 말고, 더욱 공경하여라. … 너뿐만 아니라 딸을 낳아도 제일로 인사를 가르치도록 하여라. 고금 천하에 투기로 망한 집이 많으니 투기를 하면 백 가지 아름다운 행실이 모두 보람 없이 되느니라.[6].

또한 『계녀서』 뒷부분에 가서는 아예 〈투기하지 말라는 도리〉 항목을 따로 마련하여 "내 몸을 버리고, 집이 패하고 자손이 다 망하는 것이 투기로 하여서 생기는 것이니 늙은 아비의 말을 허술하게 여기지 말고 경계하라[7]"고 신신당부한다. 17세기 후반 이후 수많은 양반 가문에서 집안의 딸과 며느리를 가르치기 위해 『계녀서』 같은 텍스트를 광범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조선시

6) 송시열, 『尤庵戒女書』, 정음사, 1986, p.14.
7) 송시열, 같은 책, p.25.

대 사대부 양반 가문에서 집안의 평화와 번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의 투기에 대해 얼마나 경계하고 압박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중세시대 부권(夫權)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공공해지고, 근세 들어서는 주자학이 국가 운영의 중심 사상으로 채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삼종지도(三從之道)를 강요하는 유교적 규범들이 여성들의 삶을 더욱 옥죄어 나갔다. 이러한 봉건적 가족제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에도시대 초기부터 여성 교훈서가 속속 간행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중적이면서 여성 교육에 깊은 영향을 미친 교훈서로 18세기 초, 유학자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1630-1714)에 의해 저술된 『여대학(女大學)』이 꼽힌다.[8] 여기에 여성의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 질투하는 마음을 결코 일으켜서는 안 된다. 남자가 음란하게 하면 충고해야지 노여움이나 원망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질투가 심하면 그 낯빛과 말이 심히 섬뜩하여 오히려 남편이 소원시하고 상대해 주지 않는 법이다. 만약 남편이 불의를 저지르면 내 낯빛을 누그러뜨리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언해야 한다 …[9].

조선과 마찬가지로 근세시대 일본 역시 여성에게 요구한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투기에 대한 경계였다. 두 텍스트만을 두고 보자면 『계녀서』가 '일백 첩을 두어도 본체만체 참으라'며 인종을 강요한데 비해 『여대학』에서는 여성의 투기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남편에게 충고할 때의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8) 『여대학(女大學)』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해서는, 石川松太郎, 「女大學について」, 『日本思想大系34 貝原益軒 室鳩巣』, 東京 : 岩波書店, 1970, pp.531-545를 참조 바람.

9) 본 인용문은 荒木見悟・井上忠 校注, 「女大學」, 『日本思想大系34 貝原益軒 室鳩巣』, 위의 책, p.202의 본문을 필자가 번역한 것임.

한편, 1776년에 간행된 단편 소설집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에 실린 〈기비쓰의 가마(吉備津の釜)〉는 여성의 질투가 불러온 참극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한데, 이 소설의 서두는 아내의 질투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고로 시작된다.

> (질투의) 해악이 심하지 않아도 가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괴하며 이웃의 욕을 피하기 어려운데, 그 해악이 큰 경우에는 집안을 파멸시키고 나라를 멸망시켜 오래도록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 예부터 투기하는 여인이 뿜어내는 독에 고통을 받은 자 셀 수 없이 많았다. 질투 끝에 죽어 뱀이 되고 혹은 천둥 번개가 되어 남자에게 앙갚음하는 여자들은 그 살을 소금에 절여도 시원치 않다 …10)

이렇게 근세시기 한일 양국은 유교적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투기하지 않는 양처상(良妻像)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여러 아내들이 한 지아비를 사이에 두고 애정을 갈구하고, 또한 그 남편의 애정에 따라 아내들의 존재 기반이 좌우되는 가족 구조 안에서 질투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일 고전 문학은 이들 '투기하는 아내'를 악녀로 설정하여 인간의 욕망과 감성이 가부장제의 시대 윤리와 충돌하는 상황을 예민하게 포착하며 다양한 텍스트를 창출해 냈다.11)

---

10) 본 인용문은 中村幸彦・高田衛・中村博保 校注譯, 「吉備津の釜」, 『日本古典文學全集48 雨月物語』, 東京 : 小學館, 1989, p.396의 본문을 필자가 번역한 것임.

11) 이와 관련하여 김귀석은 한국의 가정 소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가장 철저하게 지배하였던 조선 중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김귀석, 1997, 앞의 책, p.26.

2) 선처와 후처, 누가 악녀가 될 것인가?

쟁총형 이야기는 한 지아비를 둘러싼 선처와 후처 혹은 처와 첩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서사의 주요 골격을 이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일 쟁총형 서사가 갈등의 주범 및 가정 파탄의 원흉을 정반대로 지목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 고전문학에서 처첩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첩 또는 후처인데 비해[12], 일본 쟁총형 서사에서 악녀의 자리는 대개 첫째 부인이 차지한다.

한국 쟁총형 소설의 정실 부인들은 지성과 외모, 덕행을 두루 갖춘 완벽한 여인상으로 그려진다. 투기는커녕 본인이 나서서 남편에게 첩들이기를 권유하며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양풍운전(楊豊雲傳)』 등〕, 첩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고 알뜰히 살핀다. 심지어 자신을 모함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후처를 다시 맞아들여 함께 살기도 한다 〔『옥린몽(玉麟夢)』, 『조생원전(趙生員傳)』 등〕.

이에 반해 후처나 첩들은 예외 없이 적처를 모함하여 내쫓고 집안을 파탄시키는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 더구나 많은 작품에서 이들은 태생적으로 음탕하고 교만하며 천박한 욕망에 쉽게 빠지는 인물로 그려진다. 다음은 조선 후기 소설 『정진사전(鄭進士傳)』(작자, 성립연대 미정)에서 첩 일지(一枝)의 용모와 사람됨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 천성이 반절반절하니 모진 짓을 할 것이요, 관골이 솟았으니 뺏독성을 잘 낼 것이요, 눈썹이 거스럼하니 용심도 있을 것이요, 눈이 둥그레하니 희롱도 있을 것이요, 귀문이 열렸으니 남의 말을 잘 들을 것이요, 코끝이 소돔하니 보리가 다 열 것이요, 인중이 잘렸으니 성정이 괴팍할 것이요, 입수부리 들려 부었으니 거짓말도 잘 할 것이요, 턱이 풀렸으니 주전부리 못 참을 것이요, 웃을 적에 눈부터 웃으니 사람을 잘 홀릴 것

12) 본처가 첩을 질투하며 악행을 벌이는 고소설 작품을 찾자면 『양기손전』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은 극히 드물다.

이요. 걸음을 걸을 적에 뒤를 흘끔흘끔 돌아보니 여우가 도망가는 모양 같아 대저 길인(吉人)은 아니라 필경에 집안의 무슨 일을 낼 것이니…13)

한편, 일본의 경우 투기에 눈이 멀어 다른 부인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에 몰아넣는 것은 거의 언제나 첫째부인, 혹은 전처의 역할이다. 이렇게 처첩에 대한 한일 문학의 인물조형 방식은 완전히 반대로 전형화되어 있다. 도대체 양국의 문학에서 처첩에 대한 악녀의 자리가 이렇게 정반대로 설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쟁총형 소설에서 첩들이 정실을 모함하고 급기야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비천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식들까지도 서자라는 사회적 멸시와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구조적 모순"14)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법률은 종모법(從母法)을 적용하여 어머니가 적처가 아니거나 양반이 아닌 경우, 또 재가(再嫁)한 여성인 경우 그 자손들은 문과 생원 및 진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조선의 양반 가문에서 적처에게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일지언정 첩이 낳은 아들로 집안을 잇게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가족을 구성하려면 신분이 훌륭한 적처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조선의 양반 가문은 이러한 정식 부인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15)

이렇게 적서(嫡庶)를 철저히 차별하고 적처만을 중히 여기는 사회상을 배경으로 적처는 현부, 후처(또는 첩)는 악녀라는 문학적 이데올로기가 탄생한 것이다. 조선의 가정소설이 거의 모든 후처(첩)에게 악녀의 이미지를 씌우고 적처를 이상적 여성으로 추켜세

13) 강영숙 역주, 『김광순 소장 고소설 100선 정진사전・안락국전』, 박이정, 2016, pp.75-76. 이하 『정진사전』의 본문 인용은 본 텍스트에 의한다.
14) 김귀석, 앞의 책, p.31.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쟁총형 소설의 이러한 선악 구조가 조선 사회의 적서 차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15)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1, p.50.

우는 것은 그러한 문학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탓이다.

그런데 전근대 사회의 일본은 한국만큼 사회 제도적으로 적처의 지위가 확고하지 않았고, 적서의 차이가 심하지도 않았다. 또 이혼하는 여성, 재혼하는 여성의 비율도 같은 시기 조선에 비해 꽤나 높았던 것 같다. 일례로 17, 8세기의 혼인 실태를 보여주는 「간세이 중수제가보(寛政重修諸家譜)」[16]에 수록된 미카와국(三河國)의 마쓰다이라(松平) 가문의 사례를 보면, 17, 8세기 동안 이 집안의 여인 중 이혼율이 약 10%, 그 중 재혼율이 5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학자 와키타 오사무(脇田修)는 이러한 예를 들어 근세 일본 사회에서 일부종사의 유교적 관념이 강조되기는 했어도 현실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반감이나 주저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주장한다.[17] 이러한 현실 하에서 한 집안의 아내의 지위는 남편의 애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선처와 후처, 처와 첩 중에서 누가 남편의 애정을 차지할 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새로운 사랑인 후자 쪽이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시대가 좀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11세기 선처와 후처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을 코믹하게 묘사한 문학 작품에 『신사루각키(新猿樂記)』[18]가 있다. 여기에서 남성 주인공 우에몬조(右衛門尉)는 젊은 셋째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애정을 드러내 보인다.

>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운우지락에 빠져 사니 눈을 찔러도 아프지 않고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 만인의 조롱에 머리를

16) 간세이기(寛政期, 1789-1801) 당시 무가(武家) 가문에서 막부에 올린 족보.

17) 〈寛政重修諸家譜〉 사례를 통한 근세시기 여성 이혼 및 재혼에 관한 연구는 脇田修, 「幕藩体制と女性」, 女性史總合研究會 編, 『日本女性史3ー近世』,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84, pp.22-25 참조.

18) 『신사루각키(新猿樂記)』에 묘사된 아내상에 대해서는, 김난주, 「일본문학에 나타난 일부다처제하 여성상 고찰을 위한 試論-上代에서 中世까지-」, 『동방학』, 2013, pp.296-300을 참조 바람.

저으며 두 처의 질투에는 귀를 막으리. 장생불사의 약, 장생의 비법으로 이 젊은 아내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19]

이에 반해 후처를 질투하는 첫째 부인에 대해서는 "눈동자는 독사 같고 얼굴은 악귀가 노려보는 것 같은 얼굴"[20]이라 욕을 하며 정나미가 떨어진 지 오래지만 아이들의 어미라 어쩔 수 없이 참고 산다고 말한다. 이렇듯 일본 고전문학 전통에서는 선처를 질투의 화신이자 악녀로, 후처를 연약한 희생양으로 그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일본 문학의 이러한 관습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우와나리우치(うわなり打ち)'라는 풍속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말로 '후처 때리기' 정도로 번역되는 이 풍속은 고대에서 중세시대까지 행해진 민간습속으로, 전처가 자신의 친지 등을 불러 모아 남편과 새로 결혼한 후처의 집을 습격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소동을 피우는 풍습이었다. 1811년 에도(江戸) 후기의 인기 작가 교쿠테 바킹(曲亭馬琴)이 저술한 수필집 『니마제노키(烹雜の記)』에는 15, 16세기 이 풍속이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가 기술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이 책에 따르면 전처가 후처의 집에 쳐들어갈 때 미리 사람을 보내 예고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처는 지인들을 불러 모아 대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일은 없고 구경거리로 치부되는 등 오락적 성격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 중에는 폭력이 지나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말이다.[21]

일본 쟁총형 서사에서 선처가 악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적처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제도적 요인과 함께 이 '후처 때리기' 풍습이 반영된 결과라 짐작된다.

---

19) 藤原明衡 著, 重松明久 校注, 「新猿樂記」,『新猿樂記·雲州消息』, 東京 : 現代思潮社, 1982, pp.17-18.

20) 藤原明衡 著, 重松明久 校注, 「新猿樂記」, 같은 책, p.16.

21) 曲亭馬琴, 「烹雜の記」下之卷, 日本隨筆大成編集部編 『日本隨筆大成』第1期 21, 東京 : 吉川弘文館, 1994, pp.490-504.

그렇다면 양국의 문학은 처첩간의 갈등과 악녀들의 악행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악행의 양상

1) 한국 쟁총형 소설의 경우

한국 쟁총형 소설에서 한 지아비를 둘러싼 아내들의 갈등은 크게 처처의 갈등과 처첩의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처처 갈등과 처첩의 갈등은 그 원인과 전개 과정, 해결 양상 면에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한다. 먼저 처처 갈등이란 선처와 후처 간의 갈등을 말하는데, '이 경우 남편의 애정이 전적으로 첫 부인에게 쏠려 있고 이를 질투한 후처가 문제를 일으키는 구도로 되어 있다. 남편의 애정이 선처에게 편향된 것은 선처와의 결연이 애정에 의한 운명적인 것인데 비해 후처와는 외부의 강권에 의해 애정 없이 맺어졌기 때문이다'.[22]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실제 결혼 풍속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조선 양반가의 결혼이란 남녀의 애정이 아니라 양가의 이해관계나 집안 어른들끼리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조선시대 고소설은 적처와의 결혼을 이렇게 운명적 사랑으로 일관되게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처처 갈등의 대표작으로 『조생원전(趙生員傳)』, 『월영낭자전(月英娘子傳)』, 『정을선전(鄭乙善傳)』, 『옥란빙(玉鸞聘)』,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등이 꼽힌다.

또 흥미로운 것은 고소설의 세계에서는 제1부인의 지위가 혼인

22) 한상현, 앞의 논문, p.21 ; 朴慶烈, 앞의 논문, pp.94-95.

의 순서가 아니라 첫 정혼자에게 부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소설『월영낭자전』(작자·창작연대 미상)의 경우, 희성과 월영은 어린 시절 아버지들끼리 정혼한 사이지만 월영의 부모가 비명횡사하고 월영이 죽었다는 소식에 희성이 마지못해 민씨와 혼인한다. 따라서 제1부인은 민씨 부인이 되고 나중에 결혼한 월영은 후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씨 부인은 아내로서 희성에게 한 번도 따뜻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월영이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며 외로운 민씨를 품어 주는 등, 제1부인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실제 조선 사회는 혼인한 순서에 따라 첫 부인에게 적처 지위를 보장했으나 고소설의 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정혼한 운명적 여인에게 제1부인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처첩이 갈등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애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정 안에서의 더 나은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탐욕으로 인해 첩이 악행을 일삼는다. 대표작으로는『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정진사전(鄭進士傳)』,『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양풍운전(楊豊雲傳)』,『쌍선기(雙仙記)』등이 꼽힌다.[23]

한국 쟁총형 서사에서 후처(또는 첩)가 행하는 악행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거의 모든 쟁총형 소설에서 후처(첩)들은 모략을 써서 적처를 축출한다. 그 모략이란 대개 적처가 부정(不貞)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고, 그 중에는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개심환을 먹여 변심한 가부장이 적처를 내쫓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조생원전』,『소씨전』등).

둘째, 자식 살해의 악행이다. 후처(또는 첩)들은 의붓자식을 살해하거나 심지어 적처를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친자식을 살해하는 패륜을 저지른다.『정진사전』의 남자 주인공 정창린은 쌍둥이 누이의

23) 처첩 갈등에 대해서는 한상현, 앞의 논문, pp.21-22 ; 朴慶烈, 앞의 논문, pp.94-95 참조.

동무이자 같은 동네에서 친분을 쌓아오던 박씨 처녀와 최씨 처녀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 인연으로 두 처녀와 동시에 혼인을 하게 되고 이후 부임지에서 일지라는 여인을 첩으로 얻는다. 박씨 부인에게는 아들 금석, 최씨 부인에게는 딸 채순, 그리고 첩 일지에게는 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박씨와 최씨 부인이 친자매처럼 화합하고 온화한 성품인데 비해 첩 일지는 두 부인을 내쫓기 위해 갖은 음해를 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의붓자식 금석과 자신의 아들 평출을 살해하고 이를 최씨에게 덮어씌우는 악행을 저지른다.

> 일지가 … 급히 다듬잇돌을 들어다가 평출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다시 후원으로 돌아가 별당에 들어가니 금석이 자는지라 굴대 수건을 풀어 목을 졸라 놓고 천연히 큰방에 돌아와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 일지가 쫓아 달려가 죽은 것을 두드리고 제 가슴을 두드리며 대성통곡하여, "평출아 평출아. 네가 무슨 죄 있느뇨. 어미를 잘못 만난 탓이로다. 평출아 너를 죽인 년을 나는 안다, 네 원수를 못 갚을쏘냐?"하고 이를 갈며 머리를 산발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우니 상하 없이 소동이 났다.[24]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박씨의 아들 금석은 신이한 여승의 도움으로 환생하고, 그 후에도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여 장단 천불사에 피신해 있던 최씨 부인에게 인도된다. 또한 모함에 빠진 박씨 부인이나 최씨 부인의 딸 채순 역시 금강산 신령의 도움으로 화를 면하게 되니 결국 헛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첩 일지의 아들뿐이었다.

또한, 17세기 후반 김만중(金萬重)이 쓴 『사씨남정기』에서는 첩 교채란의 간부(姦夫) 동청(董靑)이 교씨의 아들 장주를 죽이고 사씨 부인에게 그 누명을 씌운다. 이 경우 비록 교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온몸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어린 자

24) 『정진사전』, p.89.

식을 보고도 동청을 원망하기는커녕 사씨에게 누명을 씌울 계책을 수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후에 교씨는 동청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유한림의 자식이라 속여 키우기도 하는데, 그 아들 역시 풍토병에 걸려 허망하게 죽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갖은 수를 써서 죽이려던 의붓자식 인아는 부처님의 가호로 위기 때마다 구사일생 살아난다. 이렇게 적처의 자식들은 온갖 위험에서도 살아남아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첩의 아들들은 어미의 손에 살해당하거나 속절없이 죽어 나간다. 서출의 아들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학 작품 안에서 서출 살해라는 형식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후처(첩)들이 저지르는 악행 중 세 번째는 간음과 남편 살해 음모를 꼽을 수 있다. 쟁총형 가정소설에서 후처는 좋은 집안과 미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순정이 첫째부인에게 쏠려 있는 탓에 독수공방의 세월을 보내다 결국 보상 받지 못한 사랑에 절망하며 다른 남성을 갈구한다. 또 첩의 경우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도 정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갖은 악행을 저지르다 스스로의 욕망에 빠져 음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소설 속에서 그녀들의 인물상은 대부분 천성적으로 음탕하고 천박하게 설정된다.

예를 들어 『정진사전』의 첩 일지는 "본시 기생이라 … 산에 뛰어다니는 산짐승이 방안에 갇힌 모양 … 잠자리에서 사람 품기를 일년 삼백 육십일 어느 밤인들 아니 그런 적 없다가"[25] 창린이 나랏일로 허구한 날 집을 비우니 스스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심복 차돌과 통정(通情)하는 사이가 된다. 또한 차돌의 친구 봉돌을 시켜 박씨 부인을 보쌈하려다 어처구니없게 자신이 보쌈을 당한 후에는 술장사를 하며 난봉꾼 봉돌을 부양하는 신세로 전락하는데, 천성이 음탕한지라 장에 돌아다니는 기돌이라는 사내와도 간통을 저지른다.

또 『사씨남정기』[26]의 경우 첩 교채란은 사씨 부인 제거를 도와

25) 『정진사전』, p.77.

주는 대가로 남편 유한림의 서기로 일하던 동청과 통정하는 사이가 된다. 뿐만 아니라 동청과 작당하여 엄승상을 이용해 한림을 귀향 보낸 후부터는 집안 재산을 모두 빼돌려 동청과 살림을 차리는데, 여색을 밝히는 동청이 여종을 가까이 할라치면 그녀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인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집안의 식객 냉진과 정을 통하고 동청의 악정(惡政)이 탄로나 참형을 당한 이후에는 아예 냉진의 아내가 되어 산다. 교채란은 일지와는 달리 사족(士族)의 딸로 여공(女工)뿐 아니라 글을 읽어 고인의 행실을 아는 총명한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사씨 모자에 대한 질투심과 정실 자리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성적(性的)으로도 더할 수 없는 파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조선 후기 홍낙술(洪樂述, 1745-1810)이 쓴 『청백운』에서 첩 나교란은 남편 두쌍성이 부인을 잃고도 끝내 자신을 정실 부인으로 맞아주지 않자 서하로 도망가 서하 왕의 후궁이 되었고, 『옥란빙』(작자·연대 미상)의 후처 유매영은 남편의 애정을 갈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음심(淫心)을 걷잡지 못하고 박시랑(朴侍郎)의 아들 문충(文忠)을 흠모하여 음탕방일(淫蕩放逸)"[27]하니 결국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는다. 이렇게 한국 쟁총형 소설의 후처와 첩들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목숨처럼 떠받들던 정절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음부, 탕녀의 이미지로 조형된다.

한편,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조선 쟁총형 소설 중에는 남편 살해를 시도한 첩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씨남정기』와 『옥린빙』을 꼽을 수 있다. 『사씨남정기』의 경우 애초에 교채란과 동청은 한림의 정적 엄승상을 이용해 한림을 반역죄로 몰아 죽이려 하였으나 귀양살이에 그친 것이었으며, 이 후에도 자객을 보내는

---

26) 이하 『사씨남정기』의 내용은 정병호 역주,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사씨남정기』, 박이정, 2016에 의거함.

27) 신해진 역주, 「玉鸞聘」, 『朝鮮後期家庭小說選』, 월인, 2000, p.196.

등 수 차례에 걸쳐 남편 살해를 시도한다. 또한 『옥란빙』의 경우에도 남편 진숙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유매영이 사람을 시켜 진숙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다.

이상에서 보듯 한국 쟁총형 소설은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후처(첩)들을 투기와 모략, 근친 살인과 간통을 일삼는 철저한 악녀로 조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쟁총형 소설의 경우

한국 쟁총형 소설 악행의 양상이 모략과 적처 축출, 자식 살해와 간통, 남편 살해 기도 등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면 일본 쟁총형 서사에서 여인들의 질투는 훨씬 더 심플하고 직선적으로 표출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질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상대는 물론 후처(첩)와 남편이다.

예를 들어 13세기 후반에 성립한 불교 설화집 『샤세키슈(沙石集)』(1279년 성립) 권9의 6화에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첩을 방에 가두고 인두로 배를 지져 죽게 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의 결말은 딸의 죽음을 목격한 어머니가 한을 품고 죽고, 공경 부인 역시 몸이 부어오르는 병으로 고통 받다 죽었다는 것이다. 또 비슷한 시기의 불교 설화집 『간쿄토모(閑居友)』(1222년 성립)에는 질투심에 살인귀가 되어 버리는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등장한다. 그 중 상권 21화에는 부리던 하녀가 남편과 밀통하는 것을 알게 된 부인이 하녀를 죽여 시신을 내다버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끔찍하게도 그 시신은 팔 다리가 잘려나가 큰 통나무처럼 나뒹굴고 있었다고 한다. 또 중세 소설 〈이소자키(磯崎)〉에서는 부인이 남편이 부임지에서 데리고 온 젊은 첩을 때려죽이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중세 쟁총형 서사에는 처첩간의 갈등 끝에 선처(先妻)가 후처를 살해하는 이야기가 많다.

그런데 근세 쟁총담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다음 두 이야기에서는 질투의 칼끝이 후처에서 끝나지 않고 남편까지 겨냥하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먼저 1677년에 간행된 괴담집 『쇼코쿠햐쿠모노가타리(諸國百物語)』[28] 45화에서는 남편에게 박대를 받다 열아홉에 한을 품고 죽은 여인이 원귀로 나타나 후처와 남편 소뵤에(宗兵衛)를 응징하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아내가 죽은 지 7일째 되던 날 한밤중에 죽은 아내가 허리부터 아랫도리까지 온통 피로 물들이고 키만큼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새파란 얼굴에, 이는 검게 칠하고, 부릅뜬 눈을 번뜩이면서 상어 같은 입으로 소뵤에(宗兵衛)의 침실을 찾아왔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으로 잠든 소뵤에의 얼굴을 쓰다듬자 … 하하하 아내가 웃더니 소뵤에 옆에서 자고 있던 여인을 일곱 갈래 여덟 갈래로 찢어버리고는 혀를 뽑아 품 안에 넣고 "내일 저녁 다시 올 테니 그 때는 살아생전의 원한을 풀고 말 것이다."…[29]

결국 다음 날 밤 다시 찾아온 전처의 원혼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침실로 들어가 남편을 둘로 갈라 죽이고는 천정을 부수고 하늘로 올라갔다.

또한 18세기의 대표적 소설가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대표작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1776년 간행)에 들어 있는 〈기비쓰의 가마〉 이야기는 그 갈등과 복수의 서사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다.

---

28) 17세기 후반에 간행된 『쇼코쿠햐쿠모노가타리(諸國百物語)』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되고 거기에 실린 이야기도 100화에 달한다는 점, 각 지방의 괴담을 수집하여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근세 괴이소설의 원류이자, 전근대 일본의 괴이(怪異)에 대한 인식을 정립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호 역주, 『諸國百物語』, 인문사, 2013, pp.17-25 참조.

29) 본문은 김영호 역주, 『諸國百物語』, 같은 책, pp.194-195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인용한 것임.

기비국(吉備國) 가야군(賀陽郡) 니이세(庭妹) 마을[30]에 쇼타로(正太郎)라는 사내가 있었다.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일보다 술과 여자에 빠져 살다 부모의 주선으로 신관의 딸 이소라(磯良)와 혼인을 하였다. 처음엔 쇼타로도 미인에다 일 잘하고 시부모 남편 공양 잘 하는 이소라를 어여뻐하였지만 이내 바람기를 참지 못하고 유곽을 드나들다 유녀 소데(袖)와 딴살림을 차린다. 이를 안 시부모가 대노하여 쇼타로를 광에 가두자 이소라는 시부모 몰래 쇼타로의 시중은 물론 소데의 생계까지 보살피고 나중에는 소데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쇼타로의 말에 돈까지 마련해 준다. 하지만 쇼타로는 아내가 마련해 준 돈을 가지고 소데와 야반도주를 하여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첩 소데가 무엇에 홀린 듯 발광을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만다. 그리고 그 앞에 전처 이소라가 원귀가 되어 나타난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섬뜩하게 쳐진 눈, 뼈만 앙상한 손을 내밀며 다가오는 이소라를 피해 쇼타로는 온몸에 주문(呪文)을 써 놓고, 온 집안에 빈틈없이 부적을 붙인 채 42일 동안 근신에 들어간다. 밤마다 거센 비바람 소리와 원귀가 울부짖는 소리를 참아내며 근신하기를 42일 째. 마지막 새벽 동이 터오자 쇼타로는 길고 긴 악몽에서 벗어난 기쁨에 밖으로 달려 나가지만, 밖은 아직 깜깜하고 밤하늘엔 흐린 달이 걸려 있다. 뒤이어 남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쇼타로의 집 열어젖힌 방안에 시뻘건 피가 벽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는 가운데 처마 끝에 쇼타로의 상투만 매달려 있었다.[31]

일본 쟁총형 서사에서 남편과 아내, 첩을 둘러싼 애욕의 갈등은 근세시기에 이르러 이렇게 괴담의 양상을 띠고 확산되었다. 그리

30) 현 오카야마 현(岡山縣) 오카야마 시(岡山市) 소재.

31) 이상은 中村幸彦·高田衛·中村博保 校注·譯, 『雨月物語』, 앞의 책, pp. 396-410의 내용을 필자가 번역 정리한 것임.

고 이 같은 근세 환상(幻想) 문학의 결말은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으로 종결되는데, 중세문학에서 그 복수의 칼끝이 대개 후처(첩)에 국한되었다면 근세 괴담에서는 남편을 정조준하는 양상을 띤다. 이와 관련하여 민속학자 이케다 야사부로(池田彌三郎)는 저서 『일본의 유령(日本の幽靈)』에서 애첩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까지도 살해하는 여주인공 이소라의 망령에 대하여 "일본 여성 유령의 전통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32]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쓰쓰미 구니히코(堤邦彦)는 이케다 씨의 지적을 발전시켜 "17세기를 경계로 하여 고전 괴담의 제재로 후처의 배제와 말살뿐만 아니라 배신자 남성을 처치하지 않고는 성이 차지 않는 여성 유령이 단골 메뉴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후처 때리기 룰의 붕괴'로 표현했다.[33]

필자는 근세 괴담문학에서 처첩간의 갈등이 빚은 복수극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근세 괴이소설의 원류로 평가받는 『쇼코쿠햐쿠모노가타리』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100개의 괴담 중에 11개 이야기가 남편과 처첩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 본처가 죽은 후 원귀가 되어 후처와 남편에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8화(8, 29, 35, 45, 47, 61, 94, 96話), 반대로 첩의 원귀 또는 생령(生靈)이 본처를 죽이는 이야기가 3화(74, 91, 99話)로, 본처의 복수담이 월등히 많았다. 이때 본처가 원귀가 된 것은 남편의 학대나 후처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는 자신이 죽은 후 남편이 재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한을 품고 남편과 후처(또는 후처만)를 죽이는 이야기도 있었다(각각 29화, 94화). 또한 본처의 복수담에서는 후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경우가 6화로, 후처만 죽이는 2화(94, 96話)의 3

32) 池田彌三郎, 『日本の幽靈』, 東京 : 中央公論社, 1974, p.41.
33) 堤邦彦, 「女靈の江戶怪談史-仁儀なき後妻打ちの登場」, 앞의 책, pp.80-81.

배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비쓰의 가마〉나 『쇼코쿠햐쿠모노가타리』의 이야기를 보면 아내의 복수가 후처에서 남편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복수의 하이라이트, 즉 최종편이 남편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근세시대 일본 쟁총형 서사는 괴담이라는 형식과 함께 남편 살해가 그 특징을 이룬다.

그런데 이 두 요소는 조선 쟁총형 소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먼저, 조선시대 고소설에서 원귀가 되는 것은 『장화홍련전』, 『김인향전(金仁香傳)』, 『정을선전』에서 보듯 계모(후처)로 인해 한을 안고 죽은 전실 자식이지, 처첩갈등으로 죽은 아내가 원귀가 되어 등장하는 경우는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보지 못했다. 또한 '원귀설화'의 경우에도 억울하게 죽은 전처가 귀신이 되어 복수하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일본 문학에서 쟁총형 서사가 괴담문학의 주류로 흘러간 반면 적어도 전근대시기 한국 쟁총형 이야기는 괴담이나 복수극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34]. 또한 조선시대 쟁총형 소설에서는 일본과 달리 한 지아비와 처첩을 둘러싼 갈등과 복수가 남편 살해로 끝나는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사씨남정기』나 『옥란빙』에서 보듯 드물게 남편 살해를 기도하는 경우는 있어도 모두 실패로 끝

34) 참고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오는 원귀설화에는 처첩의 갈등으로 죽은 여인이 원귀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이에 관해서는 조성혁 「원귀설화의 변모 양상 연구-전통적 원귀설화와 현대 원귀설화의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1-72 참조). 그런데 드물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야담, 필기류에 채록된 민담이나 설화에는 남편의 총애를 받은 하녀를 정실부인이 살해하고 그 하녀가 원귀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서유영(徐有英)의 『금계필담(金溪筆談)』(1873)에 나오는 동비 이야기와, 이익의 『성호사설』, 정태제의 『국당배어(菊堂俳語)』, 구수훈의 『이순록(二旬錄)』 등에 등장하는 〈득옥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예외적 존재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쟁총형 서사가 문헌설화, 구비전승, 소설 장르에 따라 서사구조 면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유의미한 증좌로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난다. 단언할 수는 없으나 박태상의 연구를 의지할 때 한국 소설 문학에서 실제로 남편이 아내에게 살해되는 내용이 처음 보이는 것은 개화기 신문 연재소설 『신단공안(神斷公案)』(1906년 9월 15일-10월 29일까지 『황성신문』에 연재) 26화[35] 정도가 될 것 같다. 다시 말해 근대 이전의 한국 쟁총형 소설에서는 가부장을 죽이는 서사를 용납하지 않았다.[36] 투기하는 악녀들만이 단죄될 뿐이다.

4. 한·일 쟁총형 서사의 결말

1) 적처의 승리, 가정의 회복

한국 쟁총형 서사의 결말은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룰을 그대로 따른다. 후처나 첩의 악행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 음모와 모략, 간통과 살인으로 질주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사씨남정기』의 첩 교씨는 정부 동청이 역모 죄로 몰려 죽자 냉진이라는 사내의 여자가 되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또 냉진이 악행을 일삼다 관아에 끌려가 맞아 죽은 후에는 기녀로 연명하다 유한림에게 발각되고 결국 유한림의 처분으로 목 메달아 죽임을 당한다. 그 시신은 거적에 싸인 채 들

35) 박태상, 「'남편 죽이기 모티프'의 형성·변용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 문학과 죽음』, 문학과 지성사, 1993, pp.300-302.

36) 남편살해 모티프가 고소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데 비해 설화문학에서는 그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야기의 초점은 간통한 아내의 죄를 밝히고 징치한 현명한 판관에 있으며 처첩간의 갈등에 기인한 남편 살해 이야기는 아니다. '살해된 남편 설화'에 대한 내용은 홍나래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pp.25-4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판에 버려져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되었다. 또한 『정진사전』의 첩 일지는 목숨은 부지했으나 걸식과 도적질로 연명하다 잡혀가 광혜원 장터 한가운데서 형틀에 매인 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물론 모든 쟁총형 서사에서 악녀의 말로가 전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조생원전』이나 『옥린몽』처럼 회개를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 복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그녀들은 대개 첩이 아닌 제2부인으로 왕족의 출신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상현은, 처대처 구조에서 악녀의 말로는 회개를 통한 재화합이 모색되지만, 처대첩의 유형에서는 악녀로 전락한 이후 추호의 배려도 없는 매몰찬 사형 구조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37] 즉 악녀의 말로가 그 출신성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38] 하지만 어쨌든 선처를 질투하고 정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처(첩)들의 갖은 악행은 수포로 돌아가고 대부분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에 비해 현숙하고 아름다운 첫 부인은 온갖 시련에도 신불의 가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부귀장생의 해피앤딩을 맞는다. 『사씨남정기』의 경우 복권된 사 부인은 유한림을 설득하여 임추영을 새 첩으로 맞아들이게 하니 사씨 부인의 아들 인아와 임씨의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날리고, 유한림과 사씨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팔십 여세를 해로한다. 또 『정진사전』의 경우에도 두 부인이 복권되고 헤어졌던 자식 금석, 채순과도 해후하니 가문의 영화가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결말이다.

---

37) 한상현, 앞의 논문, p.22.

38) 모든 처대처 구조에서 이러한 화합의 결말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옥란빙』의 경우 남편 진숙문과 정실 자식 백현을 죽이려 한 후처 유매영은 정부(情夫)와 함께 역모에 가담하다 진숙문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사씨남정기』의 첩 교씨와 『정진사전』의 일지가 마지막 순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비루한 목숨을 구걸하는 데 비해 유매양은 진숙문을 향하여 "나도 사문일맥(斯文一脈)으로 어찌 이 지경이 되었으리오마는 이는 도시 상공의 박대함이오 첩의 죄는 아니라"고 일갈하는 기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같은 악녀라도 처와 첩의 조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박씨는 삼남 이녀를 두고 최씨는 삼남 일녀를 두어 고문거족(高門巨族)이 성대하여 명망이 일국에 진동하고 계계승승(繼繼承承)하여 지금까지 그 자손이 조정에 편만(遍滿)하여 부귀영화 이어지니, 어찌 다시 인간 세상 마치도록 이르지 아니하리오.[39]

이렇듯 악독한 후처와 현숙한 적처 사이의 갈등은 적처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된다. 그리고 적처의 승리는 단순히 첩을 누르고 남편의 애정과 가정에서의 우위권을 확보했다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위에서 보듯 그 승리는 최종적으로 깨진 가정을 복원시키고 가문을 대대손손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한국 쟁총형 서사는 질투하는 후처를 악독하고 가문을 망가뜨리는 존재로, 투기를 모르는 현숙한 적처는 가정을 복구하고 번영의 길로 이끄는 존재로 조형하고 있는 것이다.

2) 원귀가 된 선처와 가족의 붕괴

한국 쟁총형 소설이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의 주제를 표방하는 가운데 현숙하고 자애로운 적처에 의해 가족이 복원되는 결말 구도를 보인다면, 근세 일본의 쟁총형 서사는 사랑을 잃고 배신당한 선처(先妻)의 질투심과 분노, 복수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개 가족의 붕괴와 해체로 귀결된다.

한일 쟁총형 서사는 질투하는 여성을 조형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 즉 앞서도 강조했듯이 한국 고전 문학의 경우 질투하는 후처는 태생적으로 음탕하고 욕심이 많으며 사리사욕을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악의 전형으로 조형된다. 하지만 일본 고전 문학의 경우 질투하는 여인을 반드시 전형적인 악녀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이소자키〉나 〈기비쓰의 가마〉의 첫째

39) 『정진사전』, p.130.

부인들은 원래 착하고 부지런하며 현숙한 아내들이었다. 그녀들은 남편이 없는 동안 집안을 챙기고 시부모와 남편 뒷바라지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첩의 생계까지 보살피는 어진 아내였다. 그런 아내들이 원귀로 돌변한 것은 단순히 첩을 향한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헌신과 인내가 남편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기 때문이다. 근세 후기로 내려갈수록 문학은 이렇게 착한 아내들이 악녀가 되고 원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더 깊게 응시해 준다.

소설은 아니지만 쓰루야 남보쿠(鶴屋南北) 각본으로 1852년에 초연된 가부키 『도카이도요쓰야괴담(東海道四谷怪談)』은 에도시대는 물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극과 영화, 드라마로 끊임없이 리메이크되며 인기를 모은 대표적 괴담물이다. 드라마에서 남편 이에몬(伊右衛門)은 기헤(喜兵衛)의 손녀를 새 부인으로 맞기 위해 기헤와 짜고 갓 출산한 아내에게 독약을 먹이고 그것도 모자라 다쿠에쓰(宅悅)라는 간부(姦夫)를 매수해 아내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 다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오이와(お岩)가 복수를 다짐하며 죽어가는 장면이다.

> (어머니)의 유품인 이 빗으로 헝클어진 머리라도, 아아 그래, (오이와 머리를 빗는다. 갓난아기가 울자 다쿠에쓰, 아기를 안아 달랜다. 머리를 빗어 올리자 머리카락이 산처럼 수북이 떨어진다 …)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이와 나 죽으면 곧바로 그 아이와 혼례를 올리겠구나. 저주스러운 이에몬과 기헤 일가, 어찌 편히 놔 두리오.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구나(라며, 손에 힘을 주어 빠진 머리카락과 함께 쥐고 있던 빗을 분질러 버린다). 머리카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40)

남편 이에몬은 새 여자와 혼례를 하기 위해 오이와가 입고 있던 옷마저 벗겨 들고 나갔다. 자꾸 울고 보채는 갓난아이. 모든 사실

40) 郡司正勝 校注, 『新潮日本古典集成45, 東海道四谷怪談』, 東京 : 新潮社, 1996, p.183.

을 알게 된 오이와. 독약으로 문드러져 녹아내린 얼굴, 피가 뚝뚝 흐르는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휘청거리는 오이와의 목에 칼날이 관통하며 마지막 숨이 끊어진다.

19세기의 연극『요쓰야괴담』은 이렇게 한 여인이 어떻게 배신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으며 원귀가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섬세하게 들려준다.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죽어간 여인은 원귀가 되어 피비린내나는 복수를 감행하는데, 그 결과는 가족의 몰살, 해체로 이어진다.

앞서 보았듯이 중세 불교 설화에서는 질투에 눈 먼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앗아간 첩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인과응보로 자신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또 근세 괴담에서는 사랑에 배신당한 선처들이 원귀가 되어 첩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처절하게 응징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죽어 나간다. 물론 그 중에는 〈이소자키〉처럼 남편과 부인이 애집(愛執)의 무상함을 깨닫고 참회하며 불가에 귀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쨌든 가족과 가정은 해체된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쟁총형 소설이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전개시키다 결론에 이르러서는 예외 없이 가족의 복원을 이야기하는데 반해, 일본 쟁총형 서사는 아내의 복수와 그에 따른 가족의 붕괴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한 지아비와 여러 부인을 둘러싼 애정 갈등이라는 동일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한일 쟁총형 서사는 악인의 설정과 갈등의 전개 양상, 그리고 결말 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동양적 가부장제와 현모양처라는 유교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배

경으로 근세시기 한일 문학은 '질투하는 아내'를 악녀로 설정하고 이들이 야기하는 갈등과 비극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의 경우, 후처와 첩이 악의 축으로 등장하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선처(先妻)가 악녀의 자리를 차지한다.

조선 사회에서 첩이 단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다면 적처는 가문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였다. 조선 후기 쟁총형 소설이 예외 없이 후처를 징벌하고 적처를 복권시킴으로써 가족의 복원과 가문의 부귀영화로 종결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조선의 쟁총형 소설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문의 유지와 번영이었으며 그것은 동시기 가부장 남성의 환상이 지배한 서사였다.

이에 비해 근세 일본의 쟁총형 서사는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가정의 유지와 번영보다는 개인의 욕망과 좌절, 그 해원(解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족과 남편에 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지아비의 사랑을 빼앗긴 여성의 좌절이 어떻게 분노로 바뀌고 피의 복수로 이어지는지 문학은 그 과정을 천천히 응시해 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근세 일본의 쟁총형 서사의 시각은 조선 쟁총형 소설에 비해 여성적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강영숙 역주, 『김광순 소장 고소설 100선 정진사전・안락국전』, 박이정, 2016.
김영호 역주, 『諸國百物語』, 인문사, 2013.
송시열, 『尤庵戒女書』, 정음사, 1986.
신해진 역주, 『朝鮮後期家庭小說選』, 월인, 2000.
정병호 역주,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사씨남정기』, 박이정, 2016.

石川松太郎, 『日本思想大系34 貝原益軒 室鳩巣』, 東京 : 岩波書店, 1970.
郡司正勝 校注, 『新潮日本古典集成45 東海道四谷怪談』, 東京 : 新潮社, 1996.
中村幸彦・高田衛・中村博保 校注・譯, 『日本古典文學全集48 雨月物語』, 東京 : 小學館, 1989.
日本隨筆大成編集部編, 『日本隨筆大成』第一期21, 東京 : 吉川弘文館, 1994.
藤原明衡 著, 重松明久 校注, 『新猿樂記・雲州消息』, 東京 : 現代思潮社, 1982.

2. 논문

김난주, 「일본문학에 나타난 일부다처제하 여성상 고찰을 위한 試論-上代에서 中世까지-」, 『동방학』, 2013, pp.282-316.
朴慶烈, 「고소설의 가정갈등에 나타난 악행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pp.1-238.
조성혁, 「원귀설화(寃鬼說話)의 변모 양상 연구-전통적 원귀설화와 현대 원귀설화의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1-72.
한상현, 「고소설에 나타난 악녀의 실상-쟁총형 가정소설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1-95.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1-204.
淺見和彦, 「都と鄙の女性說話-後妻打ちをめぐって」, 『國文學』50-10, 學燈社, 2005, pp.67-75.
堤邦彦, 「女靈の江戶怪談史-仁儀なき後妻打ちの登場」, 一柳廣孝・吉田司雄 編, 『幻想文學、近代の魔界へ』, 東京 : 靑弓社, 2006, pp.77-95.
脇田修, 「幕藩体制と女性」, 女性史總合硏究會 編, 『日本女性史』3-近世,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84, pp.1-30.

3. 단행본

김귀석, 『朝鮮時代 家庭小說論』, 국학자료원, 1997.
박태상, 『한국 문학과 죽음』, 문학과 지성사, 1993.
이순구,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너머북스, 2011.
鄭鉉東, 『古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83.
池田彌三郎, 『日本の幽靈』, 東京 : 中央公論社, 1974.

4. 인터넷 사이트

畑實,「家庭小說」,『日本大百科全書』, JapanKnowledge,
http://japanknowledge.com (검색일 : 2018-01-09).

(투고일: 2018. 2. 12. 심사완료일: 2018. 3. 15. 게재확정일: 2018. 3. 21.)

김난주
소속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87, 431-204
전자우편 : nanju21@hanmail.net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ve Struggle Stories of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Focused on the Classical Novels since the 17th Century-

Kim, Nan-Ju

This study intends to figure out the features of love struggle stories of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in the recent era by comparing those stories' plots, especially focus on conflicts between one's wife and concubine. "Jealous wives" are set as wicked women in the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t is almost a concubine to do evil, and cause disruption of the family. But, in Japanese literature, the place of the wicked woman is traditionally occupied by the first wife. And, in the Korean love struggle stories, the wicked acts of concubines are varied, plotting to expel the wedded wife, child murder, adultery, etc. But, the main story of the Japanese love struggle stories in the recent era is that the dead ex-wife becomes a revengeful ghost and kills her husband and a concubine. But, in Korean classical novels, the motif of killing husband is not be found. And the revengeful ghost only appears in stepmother type novels, but in love struggle novels. The ending structure of the Korean love struggle is that the wicked concubines meet miserable ends, and the graceful wedded wife returns to her home, and restores the family and leads to the path of prosperity. But the Japanese novel ends with the extermination and the complete dissolution of the family due to the revenge of the dead ex-wife.

Key Words: Love Struggle Story, Jealousy, Conflicts between One's wife and Concubine, Uwanariuchi, Ghost story